

조업일 3일 적은데 2월 수출 9.5% ↑ …4개월 연속 플러스

2월 수출 448억 달러…수입 14% ↑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기록

일평균 수출 40개월 만에 최고치

반도체 등 15개 주력 품목 중 11개 ↑

우리나라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월이나 적은 조업일수에서 기록한 실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조업일수를 따지지 않은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하면서 4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들이 여전히 선전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을 비롯한 신성장 품목의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을 이끌고 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수출 회복세 '뚜렷'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수출이 448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5%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1월(3.9%)부터 12월(12.4%), 올해 1월(11.4%)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달 수입은 421억1000만 달러로 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27억1000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지속했다.

특히, 올해 2월 조업일수는 19.5일로 지난해 2월(22.5일)에 비해 3일이나 적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더군다나 지난해 2월은 15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지지효과도 높은 편이었다.

산업부는 "최근 10년간 2월 이상 조업일이 감소한 총 13번의 달 가운데 이번 달을 포함해 4번만 플러스를 기록했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수출 호황기였던 2017년과 2018년에 3번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이번 달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6.4% 증가한 22억98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역대 2월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또한 4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총수출과 하루 평균 수출이 동시에 4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35개월 만에 처음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 경기와 교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관계부처 합동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해 올해 확실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함께 우리 수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수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체·차 끌고,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밀고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

반도체·차 끌고,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밀고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

목 15개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차부품, 철강, 선박,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11개가 강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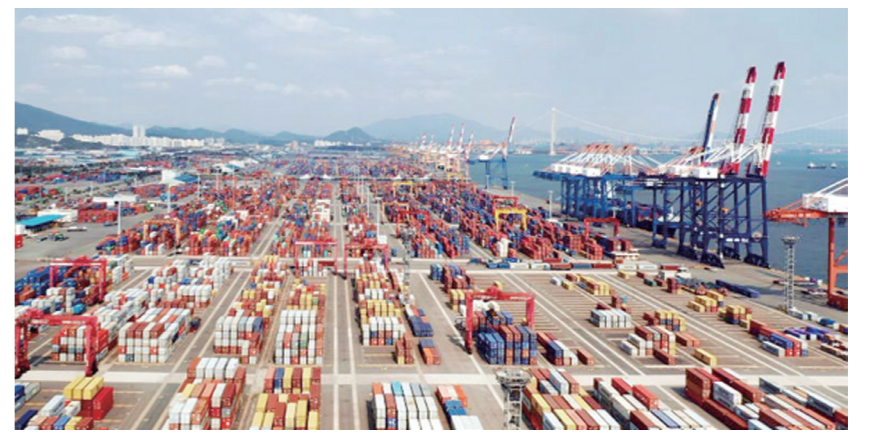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액은 13.2% 증가한 83억7000만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역대 2월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및 모바일용 수요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파운드리 대형 고객 수주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수출액은 35억3000만 달러로 47.0% 늘어나면서 10년 6개월 만에 2개월 연속 40%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 수출 비중 증가로 단가 강세가 이어지는 점이 긍정적이다.

바이오헬스와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각각 62.5%, 19.1% 증가한 12억7000만 달러, 13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선통신과 가전도 각각 10.3%, 13.3% 늘어난 11억8000만 달러, 6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호세세를 이어갔다.

이외에 철강(3.8%, 23억7000만 달러), 선박(4.0%, 15억 달러), 차부품(8.9%, 19억6000만 달러) 등도 수출이



늘었다.

신성장 품목으로 분류되는 이차전지(10.1%, 6억3000만 달러), 화장품(18.3%, 6억2000만 달러), 농수산식품(5.5%, 6억8000만 달러) 등이 강세를 보인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간 부진했던 석유화학과 석유제품도 유가 상승과 글로벌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석유화학 수출액은 22.4% 늘어난 38억 달러를, 석유제품 수출액은 15.2% 감소한 2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일반기계(-5.6%, 39억3000만 달러), 컴퓨터(-4.1%, 10억4000만 달러), 섬유(-23.7%, 8억5000만 달러) 등은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6.5%), 미국(7.9%), 유럽연합(48.2%) 등 3대 시장

수출이 모두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액은 111억6000만 달러로 준철 연휴에도 4개월 연속 으뜸세를 이어갔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64억 달러로 역대 2월 최고치를 달성했다.

EU로의 수출액은 51억6000만 달러다. 선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의 선전으로 4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했다.

중남미 수출액은 18억2000만 달러로 3.8% 늘었다.

이외에 아세안(-7.3%, 72억1000만 달러), 일본(-2.8%, 22억 달러), 인도(-7.2%, 12억8000만 달러), CIS(-13.3%, 9억3000만 달러), 중동(-24.0%, 10억5000만 달러) 지역으로의 수출은 부진했다. 김민정기자



이마트24가 출근,등교 고객 아침 책임진다

1일 오전, 성수동 소재 이마트24 성수대우점에서 모델이 모닝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24는 3월 한 달간 매일 아침 7시~10시까지 사과+하얏메리카노, 샌드위치 2종(택1)+하얏메리카노를 최대 38%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모닝세트를삼성카드로 결제 시 추가 500원 할인으로 최대 57%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마트24는 매일 행사상품을 변경하며 모닝세트 할인 판매를 지속할 계획이다. (사진=이마트24 제공)

“전화 한통이면 방역에 안전귀가까지”

KT,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 개시

3월 한 달간 무료 서비스

KT가 전화 한 통으로 택시 이용자의 탑승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 이용자는 별도로 탑승 기록을 하지 않거나, 이동차량 내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 추적이나 밀접접촉자 역학 조사에 어려움이 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는 080콜체크인 서비스에 문자를 받는 사람까지 추가할 수 있는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KT의 안심택시 콜체크인은 사용법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콜체크인을 위해 택시 내부에 적힌 특정 080 번호로 전화를 걸면 ‘안녕하십니까, 택시콜체크인입니다. 문자 수신자 추가는 1번, 미지정은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고, 1번을 누른 뒤 문자를 받을 번호를 입력하면 통화 종료 시 택시 탑승자와 지정수신자에게 차량번호가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다. 야간에 택시를 탈 경우나 노약자가 혼자 택시를 이용할 때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 안심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문자 수신자 지정이 필요 없는 경우 2번을 누르면 콜체크인이 완료돼 통화가 끝난다. 택시 이용 내역은 통화 기록의 형태로만 남아, 종이명부처럼 기록이 외부에 노출될 염려가 낮다.

기본 통화 이용료는 1건 당 4.82원이며, 문자를 보낼 경우 1건 당 7.92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므로, 택시 탑승객이 부담

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KT는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위해 3월 한 달간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KT는 이 기간에 모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KT 엔터프라이즈서비스DX본부 민해병 본부장은 “코로나19의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전남도, 농촌 미래 담보할 ‘스마트팜 보급’ 확대

고흥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창업 보육생 52명 선발·교육



전남도는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농업을 적극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일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전남도는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과 실증단지 등을 연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시설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1100억원을 들여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33.3ha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생 52명을 선발해 20개월 간 이론부터 실습·경영까지 장기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내년까지 156명의 청년농을 도내에 정착토록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해 기술혁신과 검증·실증, 스마트팜 내 환경생육 데이터 등을 수집·저장·분석하고 이를 도내 농가들이 영농정보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한다.

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은 올해 20억원을 투입하며, 시설 하우스에서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전남 도내 스마트팜 농가는 241농가 143ha로 지원이 시작된 지난 2014년 10ha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팜 농가 증가의 원인은 기존 농장 대비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성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지역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소멸이 우려되고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마트농업을 확대 보급해 소득이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치솟는 집값에 전국 미분양 주택 ‘역대 최저’

국토부, 전국 미분양 통계…1만7130가구

집계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

집값 상승 여파로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만713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달(1만9005가구)에 비해 9.9%(1만875가구) 줄었다.

이는 국토부가 미분양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 기록이다. 종전 최저 기록은 2002년 4월 1만7324가구였는데 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 정점(16만5641가구)을 찍고 이후 점점 줄어들었다. 최근 몇 년간은 4~6만 가구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치솟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이 1861가구에 전월(2131가구) 대비 12.7%(270가구) 줄었고, 지방은 1만5269가구에 전월(1만6874가구)

대비 9.5%(1605가구) 감소했다.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49가구 남았다. 지난달과 같은 수치다.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강동구에 몰려 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1만988가구에 전월(1만2006가구) 대비 8.5%(1018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637가구에 전월(700가구) 대비 9.0%(63가구) 감소했다. 85㎡ 이하는 1만6493가구에 전월(1만8305가구) 대비 9.9%(1812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취재본부